

12 르포-브리검 영 대학교 한국어학과 전공 연수기

“직접 체감한 한국어의 위상, 교사로서의 소양도 경험”

서나은 기자 merlo@khu.ac.kr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관심이 많을까? 어떤 나라인지는 알까?”

설레는 마음으로 한국어학과 전공연수를 신청했지만, 비행기에 몸을 실으면서도 머릿속을 맴돌던 걱정이었다. 한류로 인해 각종 매체에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외국인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긴 하지만 그게 정말일지, 많은 세계인이 한국어를 배우는지, 또 그렇다면 교육 현장은 어떤지 궁금증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리고 지난 1월 18일부터 미국 유타주 프로보에 위치한 브리검 영 대학교로 한 달의 연수를 떠났다.

미국에서 이뤄지는 한국어 교육

긴 비행에 고단함을 안고 숙소에 짐을 풀 것도 잠시, 떨리는 마음으로 교실 문을 열자 12명의 미국인 학생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안녕하세요!” 나는 당연히 “Hello”를 생각하며 “헬...”까지 내뱉었지만, 학생들이 또박또박 외친 한국어 인사에 묻히고 말았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곳의 미국인 학생 대부분이 한국에 살다 왔다고 했다. 그래서인지 한국어가 꽤 유창할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도 잘 알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은 ‘마라로제 엽기 떡볶이’를 가장 좋아한다고 했다. ‘미국인이니까 불고기 같은 한국 음식을 알려줘야 하나’처럼 걱정했던 고민이 무색해졌다. 그렇게 대화를 주고받으며 어색함이 서서히 풀려갈 때쯤 수업은 시작됐다.

수업은 교수님 수업과 TA(교육 조교) 수업이 번갈아 가며 진행됐으며 주로 교수님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TA 수업 시간에 복습하는 방식이었다. 교수님과 TA의 배려로 수업 중 활동에 전공 연수생도 함께 참여했다. 덕분에 한 발짝 더 가까이에서 현장을 느낄 수 있었다.

한국어 수업이지만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도 교육 요소였다. 마침 연수 기간 중 한국 설이 포함돼 있었다. 설을 맞아 조별로 한국 설 문화를 조사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식혜를 ‘삭히다’가 무슨 뜻인지, 갈비는 왜 ‘재운다’고 하는지 등 호기심 어린 질문이 잔뜩 날아왔다. 생각지도 못한 질문에 멈칫할 때마다 외국인 친구들은 “솔직히 말해요, 한국어 잘 못 하죠?”라며

장난스런 말을 건넸다. 이내 ‘나는 한국인’임을 되새기며 정신을 차렸다.

수업 시간에도 학생들의 질문은 계속됐다. 교수님이나 TA가 무심코 사용하는 표현에도 즉시 손을 들고 질문했다. ‘달콤하다’가 ‘달다’와 무엇이 다른지, ‘-스럽다’가 색 뒤에도 붙을 수 있는지 같은 질문들이었다. ‘결혼’이 ‘혼인’과 어떻게 다른지를 물었을 때는 듣고 있던 내가 얼어버려 버렸다. 한국인도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정말 많았다.

이렇듯 학생들이 아무 때나 손을 들고 질문할 만큼 수업 분위기가 자유로웠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길어져 정해진 진도를 채우지 못한 날도 있었다. 현장 수업은 진도에만 매달리지 않았다. ‘교육 내용’이 아니라 ‘학생’이 주도하는 수업이었다. 그래서인지 수업 내내 학생들은 활기찼다.

직접 가르쳐 본 한국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청강이 끝이 아니었다.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 시연도 해야 했다. 시연을 준비하며 가장 어려웠던 것은 자유로운 수업 분위기였다. 한국에서 모의 시연 경험을 쌓았지만, 실제 현장은 모든 게 달랐다. 학생 질문은 거리낌이 없었다. 좀처럼 감을 못 잡는 우리에게 전공 교수님께서 조언해 주셨다. “한국에서 하듯 너무 많은 내용을 알려주려고 하지 마” 그 한마디를 마음에 새겼다. ‘가르치고 싶은 것’이 아닌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 할 것’에 중점을 두고 교안을 짰다.

3일간 고민하며 열심히 준비했지만, 시연은 실패하고 말았다. 준비한 내용을 모두 마쳤는데 무려 20분이나 남았다. 학생들의 다양한 질문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선불리 예상한 것이 화근이었다. 최후의 수단이었던 미니 게임까지 끝냈는데도 10분이 남았다. 그러던 중 다행히 교수님께서 나서주셨다.

청강하며 질문을 많이 던지는 학생들의 성향을 파악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질문 시간을 고려하고 교안을 짰다. 하지만 이는 ‘파악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질문에 ‘겁을 먹었던 것’이었다. 시간에 맞게 수업을 준비하고, 질문은 현장에서 유연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걸 배웠다. 비록 아쉬움은 남았지만, 훗날 직업이 될지도 모르는 한국어 교사로서 한층 성



한국어 301반 학생들과 어우러져 수업을 듣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한 달간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나누며 우정을 쌓을 수 있었다.(위 사진 흰 옷 입은 강사, 아래 사진 맨 앞 검정 옷이 필자) (사진=서나은 기자)

장할 수 있었다.

미국 친구들과 함께 맞는 한국 설

설을 맞아 주말에 회화반 교수님 댁에 초대받았다. 교수님 댁에는 교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 많은 외국인 친구가 모여 있었다. 역시나 익숙하게 한국어로 인사를 나눈 후, 다 같이 둘러앉아 만두를 빚었다. 다들 처음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솜씨였다. 예쁘게 빚은 만두는 잘 찌서 떡국과 함께 저녁으로 먹었다. 외국인 친구들도 국물까지 남김없이 싹싹 비웠다.

식사 이후에는 율놀이를 즐겼다. 교수님께서 오늘을 위해 손수 만든 큰 말판도 등장했다. 팀을 나누고 보니 우리 팀에 한국인이 세 명이나 있었다. “좀 봐주면서 할게~” 자신만만하게 시작했지만, 결과는 비극적이었다. 모든 팀원이 미국의

이었던 상대 팀은 매번 율, 모가 적절하게 나왔다. 하지만 우리 팀은 백(Back) 도가 나오질 않나, 말판을 빙 둘러 가질 않나, 좀처럼 쉽지 않은 게임이었다. 타지에서 외국인 과 함께 맞는 명절이었지만 어느 때보다 정겨웠다.

비로소 체감한 한국어의 위상

“Where are you from?” 미국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다. 길을 걷다가도,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도 불쑥불쑥 날아들었다. 낯선 사람의 질문에 잔뜩 긴장해 ‘Korea’라고 답하면 항상 ‘Awesome!’이라는 반응이 돌아왔다. 그들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처럼 아는 한국어를 말하거나 ‘Do you know Faker?’, ‘My mom loves BTS!’처럼 한국 유명인을 언급하기도 했다. 하루는 식당에서 한국인의 피

부 비결을 묻는 종업원을 만났다. 한국어로 먼저 말을 거는 학생도 있었다. 한국을 너무 좋아해 한국어를 혼자 배우는 중인데 한국인과 꼭 한번 대화해보고 싶었다는 것이었다. 이런 경험이 일상이었다.

한 달간 미국에서 한국과 한국어의 위상을 체감할 수 있었고 한국어 교사로서 갖춰야 할 소양 또한 모든 상황을 직접 경험해보며 갖추 수 있게 됐다. 그리고 한국어 수업을 들으며 해외 고등 교육 기관에서도 한국어 교육이 체계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한국어 수업 밖에서 만났던 많은 사람도 한국에 관심이 있다는 걸 직접 보고 느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관심이 많을까?”라는 걱정은 기우였고, 이번 전공연수를 갔다 와서 내린 나의 답은 “꽤 그렇다”라는 것이다.